



14

가장 영월스럽게
가장 영월답게**영월군 일반농산어촌개발 : 농촌마을종합개발**

“형은 나보고 어떻게 이런 촌동네에서 라디오 DJ를 하라는 거야!” 영화 「라디오 스타」에서 한물간 고집불통 락 가수 역을 맡았던 박중훈이 뿔난 심기로 내뱉었던 대사다. 왕년의 스타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던 그 촌동네가 어디던가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이 만나 남한강이 시작된다는 영월이다. 이곳은 촌동네다운 아날로그 정서가 흠뻑 묻어 있다. 어린 왕 단종의 꿈과 한이 서린 청령포와 장릉이 있고, 백일장에서 조부를 욕되게 하는 시를 썼다는 자책감으로 평생 방랑시인으로 지낸 김삿갓의 묘와 생가가 있다. 이외에도 선돌·어라연·한반도 지형·고씨동굴 등 자연 비경이 있다. 그런데 요즘 이곳이 사람들에게 인기다. 기계화·문명화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촌스럽다 치부해 버렸던 것에서 옛스러움과 순수함을 발견한다. 급기야 동경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영월은 국내 유일 박물관 특구로 어딜가든 박제된 시간 속의 여행을 떠날 수 있으니 가장 자연 친화적이면서 가장 문화적인 곳, 그래서 잠재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 아니던가. 영월군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관광·문화를 접목시켜 살기 좋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출발점이 요선권역, 김삿갓권역, 연당권역, 솔빛고을권역이었다. 각 권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을개발협의회를 통합·구성하여 관련 사업 계획 연계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각 권역별 사업들이 활성화·조직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 인구 4만명이 조금 넘는 조용한 고장 영월은 그렇게 새로운 태동을 준비했다. 마을 주민들의 욕구와 마을 발전은 최대화 시키되 영월 그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지키면서...



정보 나눔의 장, 마을개발협의회

영월군이 처음 농촌마을종합개발을 계획했을 시 목표는, 도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영월을 찾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자주 찾아야 농촌의 실태를 알게 되고, 그래야 농촌을 이해하게 되고 농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 정비가 필요했다. 영월군은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권역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너도 나도 자신이 속한 권역의 실리를 앞세우는 바람에 배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영월군은 지역혁신리더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리더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데 초점을 뒀다. 별도의 군 예산 비용을 들여가며 선진마을을 견학하게 하고, 교육에 참여중인 마을 리더들이 소속돼 있는 마을에 가서 그 지역의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장단점을 배우게 했다. 9회차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

기 시작했다. 집중적, 반복적 교육은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곧 각 권역 간의 연계 협력이 가능토록 만들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시에, 정보 교류를 통해 권역 간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만들었다. 자신들의 권역에서 잘 운영된 사업이 있다면 그 정보를 타 권역에 알려주는 이타심까지 생겼다. 이렇게 연대협력이 가능해지다보니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생겼다. 권역 간에 서로 필요한 시설물이 같을 경우 중간 지점에 설치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의 사업 정보가 공유되다보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권역 간의 의기투합은 사업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 놓았다.



마을개발협의회

군수님의 물심양면 농촌 사랑

스포츠에 있어 초반 기선제압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치듯이, 어떤 사업이던 간에 초반에 분위기를 잘 잡아놔야 성공하는 법! 영월군의 고민 역시 어떻게 해야 사업 초반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느냐의 거였다. 이때 박선규 군수가 나섰다.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요선권역, 김삿갓권역, 연당권역에 추가적으

| 사업예산 |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자부담)	합계
	광특회계	인센티브	기타	계			
총사업비	16,782			16,782	7,138	840	24,760
2010년 사업비	2,235			2,235	957	103	3,295

※ 총사업기간

- 요선권역 : 2008년 01월 ~ 2012년 12월 (5년) • 김삿갓권역 : 2009년 01월 ~ 2013년 12월 (5년)
- 연당권역 : 2010년 01월 ~ 2014년 12월 (5년) • 술빛고을권역 : 2011년 01월 ~ 2013년 12월 (3년)

| 권역별 추진 실적 및 성과 |

권역별		2010 성과목표	계량지표	성과(공정율)	비고
요선권역 (2008~2012)	문화복지	· 도농교류센터	· 도농교류센터 준공 (1동/ 330㎡)	· 센터 전기·통신·건축 공사 완료 · 공정율 93%	
	농촌관광	· 농촌체험장	· 농촌체험마당 설치	· 진입로, 오토캠핑장, 농촌체험장 완료 · 공정율 100%	
	경관정비	· 요선정주변 가꾸기	· 생태공원조성 완료	· 야외무대, 화장실, 주차장, 연꽃단지 완료 · 공정율 100%	
	운동휴양	· 마을쉼터 및 주차장정비	· 쉼터조성 3개소	· 화장실 자재 반입 · 공정율 10%	연차별 사업비조정
	S/W부문	· 지역역량강화	· 3차년도 지역역량 강화부분 완료	· 홍보마케팅 등 용역완료 · 공정율 100%	
김삿갓권역 (2009~2013)	문화복지	· 모운갤러리 (298백만원)	· 모운갤러리 - 토목공사 완료	· 부지조성 완료 · 주차장부지 성토 · 공정율 80%	년차별 사업비 조정
	소득기반	· 친환경 축사	· 친환경 축사 - 부지조성 완료	· 자재반입 완료 · 공정율 10%	
	농촌관광	· 도농교류 센터	· 도농교류센터 준공 - 부지조성, 건축 및 조경 완료	· 도농교류센터 신축 · 공정율 100%	
	S/W부문	· 지역역량강화	· 2차년도 지역역량 강화부분 완료	· 역량강화교육 등 용역완료 · 공정율 100%	
연당권역 (2010~2014)	문화복지	· 효부각 마을마당 · 명전마을 광장	· 효부각 마을마당 - 부지매입 완료 · 명전마을 광장 - 부지매입 완료	· 효부각 마을마당 부지매입 · 명전마을 광장 부지매입 · 공정율 100%	
	S/W부문	· 지역역량강화	· 1차년도 지역역량 강화부분 완료	· 역량강화교육 등 용역완료 · 공정율 100%	
솔빛고을권역 (2011~2013)	기본계획	· 기본계획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 완료 · 공정율 100%	

로 군비 5억 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겠다는 그야말로 막강한 카드를 들고, 사업 진행이 잘 되는 권역의 경우는, 시설 설치 등에 따른 간접비용 역시 아끼지 않겠다는 지지의사까지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메인(main) 권역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군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한 권역이라도 성공적인 마을 개발이 이뤄진다면, 다른 지역에게도 큰 자극과 동기부여가 될 것이란 것을 박 군수는 알고 있었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에 있어, 계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게끔 유도했다. 주민 개입도를 높여 스스로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자 하는 일환이었다. 한편, 권역 사업의 목표는 무조건 주민들의 수익증대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물만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게 박 군수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각 권역을 돌며 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지역의 핵심 리더가 이러하니 주변인들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농촌 전담부서는 24시 가동중

박선규 군수가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기와 의욕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농업축산과 이해동 과장을 필두로, 김경민 계장이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2008년, 보다 체계화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려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느낀 그들은 군수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과장은 마음이 급했다. 박 군수의 승낙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인사부서가 승인도 하기 전에 이 과장은 조



김경민 계장

직도부터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농촌개발계란 이름하에 마을 회의가 열릴 때마다 합류하여 조율과 코칭에 나섰다. 마을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실현성 여부를 판단해 주고,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초반부터 뭐든 것을 함께 계획하고 고민하다보니 사업의 오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직접 나서서 조율하다보니 큰 소리가 나는 일도 없었다. 물론 이 때문에 농촌개발계 사람들은 설 틈이 없었다. 권역 회의와 관련 교육들이 대개 저녁이나 주말에 진행되다보니 자신의 모든 시간을 이곳에 할애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 군청 직원들이 뛰어들어 주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터, 더욱더 협조적으로 진취적으로 마을 살리기에 최선을 다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변신

1970년대만 해도 영월의 인구수는 13만 명이었다. 하지만 이농과 탄광산업의 사양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인구 4만명이 조금 넘는 초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다. 지역공동화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역민 정착과 도시민 인구를 유입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요선권역 내 성흥기 사무장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도시민 유치 작전에 돌입했다. 마을 설명회를 열어 영월, 그것도 요선권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성 사무장 스스로가 자신의 권역을 살려보겠다며 도시민 유치에 박차를 가하자 영월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시민들의 주택용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흔히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요선권역의 경우, 마을 호 단위가 작다보니 그럴 수도 없는 일. 일단 규모에서 미달이었다. 게다가 전원 마을조성사업으로 승낙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해도 일년 이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영월군은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농촌마을종합개발 기존 사업과 연계를 통해 도시민들의 경우, 주택용자금을 0순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인허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줬다. 여기에 진입로 포장도 물론이요, 상하수도 공사 등을 통해 생활 기반 인프라를 활성화 시켰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가구수만 총 32가구였다. 이때 한 가지 더 신경써야 할 것이 있었다. 새로운 도시민의 유입은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시킬 수 있단 점이었다. 하지만 갈등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다. 도시민 유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성 사무장이 중간 매개 역할을 잘한 덕분이었다. 지역민이나 도시민 할 것 없이 다같이 마을 고사도 지내게 만들고, 음식도 나눠먹을 수 있는 친목의 장을 자주 마련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어우러져 고충과 애환을 나누며 인간 대 인간으로서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 추진 실적 및 성과 |

연도별	위치	면적	가구수/명	사업비
2008~2009	수주면 무릉1리 거라리들	-	15/30	1,500백만원
2010	수주면 무릉1리 명마동	8,250㎡	7/14	700백만원
2011	수주면 무릉3리 송골	8,017㎡	10/20	1,000백만원

추억+재미를 살려 새로운 활로 개척

도시민 유치 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당시, 요선권역 내 주변 환경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일단 요선권역은 법흥사를 비롯한 사찰과 박물관이 가까이에 있고, 등산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교육,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이에 요선권역 내 학교와 서울 성동교육청 관할 하의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영월군과 서울 성동교육청이 도농교류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수확까지 얻게 되었다. 영월군과 요선권역은 도시민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일 체험프로그램부터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및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었다. 무조건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농촌에 대한 즐거운 추억거리가 생기면 재방문이 늘어나고, 입소문도 날 것이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농촌체험활동은 학부모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이에 성동교육청 내 학교들이 점차 이곳에서의 체험활동을 더 많이 원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업 활로도 열렸다. 그 일환으로 영월군은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과 백두대간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성동교육청 내 관할 학교 급식으로 연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 지역은 내 손으로 직접

사업 초창기 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예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설계 등에서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체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자 마을 주

민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내놓거나 필요용품은 사비를 들여 기증하기에 이르렀다.

잡음도 많았다. 그때마다 요선권역 내 이상하 추진위원장은 단호하게 밀고 나갔다. “모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보면, 절대 마을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때로는 단호하게 대범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이 추진위원장의 추진력 덕분에 그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단결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새터공원이다. 예전만 해도 새터공원은 사람을 풀숲에 버리고 가도 모를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지역주민들 손에 의해 눈부신 곳으로 성장했다. 2년 내내 주민들이 자신의 장비와 사비를 써가며, 흙을 수백 차 퍼내고, 직접 로프를 타고 계곡 바위와 돌흙 등을 퍼낸 결과였다. 직접 모든 걸 주민들, 자신의 손으로 해내다 보니 위험한 상황도 수차례였다. 바위나 돌에 발이 찌이거나, 장비를 다루다 손이 다치는 경우도 허다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다보니 또 사비가 들 수밖에 없었다. 늘 위험과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멈추지 않았다. 새터공원 조성에 가장 앞장섰던 박동호 위원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이 참 재밌어요. 내 손으로 마을이 단장되고 예뻐지는 걸 보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걸 정말 해 본 사람들은 내 마음 알 거예요.”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 하에 새터공원은 아름다운 쉼터이자 휴식처가 되었다. 도시민들의 야영장으로 활용되며 마을 소득이 되는 동시에, 주변 숙박시설들이 활성화 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꿈은 이루어진다!

현재 영월의 요선권역과 김삿갓 권역은 사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



다. 김삿갓 권역은 김삿갓이란 브랜드를 앞세워 특산물 판매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권역의 성공은 다른 권역에도 모범사례가 되는 동시에 자극이 되고 있다. 물론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당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권역의 사람들도 있었다. 자신이 사는 마을은, 그냥 농사짓는 농촌일 뿐. 멋진 계곡이나 수려한 경관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바로 주민 9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순수한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잉태하고 있는 연당권역의 이야기다. 이때 농업축산과 농촌개발 담당 김경민 계장은 이런 말로 사람들을 다독였다고 한다. “다른 마을과 견주었을 때 우리는 자원이 없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원이 아니다. 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 마을 사람들보다 못한가? 우리(영월군)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후 연당권역 마을 어귀에는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다. “꿈은 이루어진다.” 연당권역은 농촌관광을 과감히 포기, 지역 특색에 맞춰 한우와 곤드레 가공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우회했다. 이것이 바로 영월의 농촌마을종합개발의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권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잘사는 농촌마을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 영월의 꿈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뤄져가고 있다.

영월 전체를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만들고, 지역의 자원들을 끌어내서 문화 콘텐츠적인 요소를 살리겠다는 박선규 군수가 있기에,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농촌개발계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내 마을은 내가 지키고 변신시키겠다는 주민들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곳, 그곳이 바로 영월이다.

